

# 프랑스혁명과 여성의 역할\*

이세희 · 현재열

- |                      |                     |
|----------------------|---------------------|
| I. 머리말 : 구체제하의 여성관   | IV. 1793-1794 년의 역할 |
| II. 1789 년의 역할       | V. 반혁명과 1795년의 역할   |
| III. 1790-1792 년의 역할 | VI. 맺음말             |

## I. 머리말 : 구체제하의 여성관

여성들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왜곡된 채로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성 없는 역사란 과연 가능한가? 여성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인류의 절반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 중요한 구성원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프랑스혁명의 업적은 봉건제적 잔재를 청산하고 절대왕정과 귀족층을 소멸시키는 한편 영주제와 봉건적 특권신분을 타도함으로써 자유, 평등, 우애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사회 성립의 중요한 토대를 놓았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혁명은 당시의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혁명의 진행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프랑스혁명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물론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도 엄청난 기대와 희망의 기회로 간주되었다. 혁명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특권신분 여성보다는 빈민과 서민층 여성들에서 훨씬 강하였으며 따라서 많은 민중출신 여성들은 믿음과 진지함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남성들과 함께 대혁명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던 것이다.

구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은 신체적, 지능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존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1-045-B23003).

재로 간주되었다. 백과전서파는 이러한 자연이나 본성에 기인된 여성의 열등한 상태를 무엇보다 교육제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돌렸지만 달랑베르가 제시한 것처럼 남녀 모두에 유사한 교육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중세의 스콜라적 전통 속에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신화부터 여성의 모습은 남성에서 만들어지고 남성 다음으로 창조된 열등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그려졌다. 여성의 부정적인 이미지, 유혹적이고 죄를 범하기 쉬운 부정적인 이미지는 널리 퍼져 있었으며 비록 순결함과 어머니의 상징인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 의해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성은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18세기의 계몽사상가와 과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 묘사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종교적, 형이상학적 토대에 근거한 새로운 모랄을 창출함으로써 그들 나름의 방식과 용어를 통해 여성의 열등화를 공고히 하는데 가담하였다.<sup>1)</sup>

‘여성은 남성의 계집’이며 ‘남성은 여성의 사내’라고 백과전서의 작성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육체와 이성을 지닌 존재인 남성은 바로 인간을 대표하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지닌 도덕적, 정치적 존재로서 교육을 통해 도야되며 법률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성 안에서 ‘부족한 남성’을 보는 해부학자들의 노선 속에서 계몽사상가들은 여성의 열등함을 우선 신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 열등함은 생식에서의 엄밀한 역할이 아직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던 월경주기 같은 여성 신체의 교란이나 변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여성의 월경은 구역질을 일으키거나 겁나는 현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임신은 여성을 영원한 환자로 만들고 있었다. 17, 18세기의 산부인과학에 대한 관심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접근을 가능케 했음이 사실이다. 여성의 신체는 특수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은 완전한 존재인 남성, 본보기와 규범의 동의어인 남성과 항구적인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들은 단지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 뿐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을 평가절하 하거나 왜곡시키는데 이용되는 ‘여성의 자연적 개념’으로 통하게 된다. 그것은 구별주의(différencialisme)라고 부르는 남녀 양성의 특이성, 다시 말해서 남성은 강한 성이며 여성은 아름다운 동시에 약한 성이라는 계서적 구별주의로 귀결된다.<sup>2)</sup>

여성질환의 전문가들은 이런 조류에 광범위한 책임이 있다. 실제로 18세기

1) Yannick Ripa, *Les Femmes, actrices de l'histoire de France, 1789-1945*(Paris: SEDES, 1999), p. 10.

2) *Ibid.*, p. 11.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와 산파들에 의하면, 수태기관인 자궁은 여성의 모든 구조를 설명해 주는 바, 여성은 출산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모든 여성은 자궁 안에 있다”

남성이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자궁은 기이하고 신비스러우며 불안하고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자궁은 여성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며 이런 구조적 취약성으로부터 여성의 신체적 연약함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계몽사상가들은 또한 여성의 정신적 열등함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비록 여성이 영혼과 신체 이외에 이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신체에 의해 지배받는 여성은 오랜 시간 정신을 고정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남성만이 이성을 훌륭하게 사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추상력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고안하고 창조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과학, 철학, 예술 등의 창조적 분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18세기말의 시대를 관통하던 이러한 생각은 여성지위를 평가절하 시키려는 남성들의 편견의 반영으로서, 여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동시에 남성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비교목표이 윤곽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남성의 절반 가치를 지녔으며 상호성은 있을 수 없는 일에 속했다.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 ; 남성은 뜨겁고 여성은 냉담하다 ; 남성은 불이고 여성은 물이다 ; 남성은 무뎡뎡하며 여성은 부드럽다 ; 남성은 능동적이며 여성은 수동적이다 ; 남성은 침착하며 여성은 다정다감하다 ; 남성은 용감하며 여성은 겁이 많다 ; 남성은 천재이고 여성은 아름답다”<sup>3)</sup>

이러한 남녀의 특수성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기보다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으로서 남녀간의 차이는 기존의 생물학에 입각하여 불평등한 용어로 남성의 지배를 위하여 고안되었던 것이다. 자연질서의 존중은 아이를 낳아 기르며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전념해야 한다는 여성의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1775년에 의사 피에르 루셀(Pierre Roussel)은 19세기에도 계속하여 재발간 될 영향력 있는 저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체계』를 출간했던 바, 그는

3) *Ibid.*, p. 12.

여성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여성이란 자신의 신체적 구조로 요약된다고 생각하였다. 여성의 신체구조는 여성을 안(실내)에 있는 존재로 운명지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성의 상징은 남성이 밖(외부)에서 지내도록 운명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주의는 점차 남녀 역할 상의 사회 문화적 결정주의로 이끌려졌다. 루소는 이러한 성적 차별주의 (sexisme)의 대표자이다.

“여성은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 남성 역시 여성을 즐겁게 해야하지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여성이 남성을 즐겁게 하고 복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여성은 남성에게 도전하는 대신에 남성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의 힘은 그 매력 안에 있다.”<sup>4)</sup>

루소에 의하면 여성이란 남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으며 따라서 여성은 남성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되는 것이었다. 여성은 또한 어머니가 되어야하며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여성 한 명이 4명 또는 5명의 자녀를 낳아야만 되는 바, 그 이유는 신생아의 절반은 사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며 대를 잇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명의 자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sup>5)</sup>

볼테르는 자신의 생리학에 비추어 여성은 남성보다 연약하다고 단언하고 이런 특징은 여성으로 하여금 가사에 전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여성에게서 남성적 재능을 보는 것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살롱을 소유한 그의 여성 친구들의 지적적 자질은 인정하고 있다. 그는 또한 남성의 부당한 권위가 행사되는 결혼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자연주의 이론의 지지자인 디드로는 여성들이 신체의 지나친 감수성에 의존하는 것을 개탄하고 모든 노예상태와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다. 디드로의 사회적 비판은 여성의 열등함을 하나의 문화적 현실로 고발하도록 했으며 아내를 남성의 소유물로 만든, 교회에 의해 수립된 결혼제도를 유죄 판결하기에 이른다. 몽테스키외의 분석은 여성의 자연적 열등함을 거부하고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남성의 압제를 고발하는 동시에 인종간의 평등은 물론 남녀 사이의 평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남녀평등이 실제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이론적 입장을 거의

4) Jean-Jacques Rousseau, *Oeuvres complètes*, tome 4, *Emile*, livre 5e(Paris : Gallimard, 1969), pp. 693-694.

5) *Ibid.*, pp. 698-699.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6)</sup>

폴랭 드 바르(Poullain de Barre)는 남녀평등의 옹호자로서 17세기에 선구적 길을 개척했지만 18세기의 사상가들은 그를 추종하지 않았다. 교육 개혁가들은 주로 상류사회의 여성에 관하여 언급했으며 학문적 주제들은 여성을 다루었지만 다양성 속에서의 여성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고 민중여성들의 경제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않는 등 계몽사상가의 담론들은 여성의 일상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대혁명 초부터 여성들은 사회적, 가정적,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다.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테르와뉴 드 메리쿠르(Théroigne de Méricourt) 같은 여성들은 매우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보다 온건한 모습을 나타냈다. 콩도르세와 구즈는 여성들은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류 공동체에 속하며 따라서 남성과 동일한 자연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남녀평등론의 신봉자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자기 주장을 실제로 관철시키는데 이르지 못한 바, 여성의 현실참여를 완강히 반대하는 남성들의 저항에 끊임없이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혁명과 연사들은 국가 일이나 정치무대에 개입하려는 여성들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여성의 활동은 가정 안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프랑스혁명의 전개와 관련된 내용들, 그 중에서도 지롱드파와 자코뱅파의 싸움, 로베스피에르와 당통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의 지도자에 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30년 동안 그리고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전후한 시기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혁명에 참여한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혁명적이든 반혁명적이든 대혁명에 참여한 여성들은 수가 많았는데, 여성들은 대부분 대혁명에 자신들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려는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반혁명적 전통의 시각에서 볼 때 대혁명은 여성들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만들었으며 여성의 부드러운 본성을 변질시키는 계기로 인식되었다. 여성을 괴물로 만든 대혁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괴물이라는 것이다.<sup>7)</sup>

1789년 10월 반혁명에 대응하고 원활한 빵 공급을 요구하기 위해 베르사유로 행진한 것은 바로 대규모의 여성이었다. 1792년 8월 10일, 도시와 농촌

6) Ripa, *Les Femmes*, p. 13.

7) Dominique Godineau, "Citoyennes, boute-feux et furies de guillotine", *De la violence et des femmes* (Paris: Albin Michel, 1997), p. 33.

에서 온 여성들은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 국민방위대와 나란히 퐁르리 궁을 방문하였다. 1793년 2월 여성들은 수 천명이 상점에 침입하여 설탕, 비누, 양초 그리고 때로는 커피 등의 생필품을 그들이 스스로 정한 가격에 가져갔다. 여성들은 또한 자신의 클럽들을 설립했던 바, 가장 영향력 있는 클럽은 파리에 있는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시민 협회'였다. 여성들은 구역의 정치활동에 힘을 쏟았으며 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몇몇은 실제로 군대와 함께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최근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혁명의 각 시기별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을 하는데 주요 목표를 두었다. 본고는 또한 프랑스혁명이 여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주었으며 혁명기 여성의 역할이 대혁명과 프랑스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한계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9)</sup>

## II. 1789년의 역할

1789년 1월 24일 국왕 루이 16세는 1614년 이래 한번도 열리지 않은 삼부회의 소집을 명한다. 그는 또한 국민의 불평을 알아보기 위해 진정서를 작성해 오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하여 1789년 봄에 프랑스 전역에는 수만 통의 진정서들이 작성되었다. 여성의 진정서는 주로 여성상인 공동체와 수녀 공동체에서 만들어졌던 바, 이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존재를 보전하고자 하는 염려를 나타냈다. 집단적 방식으로는 최초로 프랑스 인들은 발언하고

8) Bernd Jeschonck, "Pauline Léon et la société des citoyennes républicaines révolutionnaires," *Les Femm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Toulouse: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1989), tome 1, p. 83.

9) 본고는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전후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비교적 최근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양하고 가급적 긍정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프랑스혁명기의 여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광범위한 주제로서 본고에서는 지면관계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본고와 관련된 국내논문으로는 함희숙, 「프랑스혁명과 여성운동」, 『여성』 2(1988.1); 이세희, 「프랑스혁명기 여성운동과 파리의 민중협회들」, 『부대사학』 12(1988.6); 육영수, 「프랑스혁명은 여성들에게도 정말로 혁명적이었을까? -영화로 읽는 프랑스혁명2-」, 『프랑스사 연구』 4(2001.2)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여성의 역사』 4(상), 페미니즘의 등장: 프랑스대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새물결, 1998)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모였다. 여성의 진정서는 가장 작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바이야주 회의에서 사법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봉토소유 여성과 수녀 공동체뿐이었다. 그렇지만 삼부회의 진정서 이외에 각종 청원서, 풍자문, 팸플렛, 상송들의 유포에 의한 광범위한 여론의 흐름 속에서도 여성의 발언들은 명백히 확인된다.<sup>10)</sup>

진정서들은 여기 저기서 여성이 지녀온 무지와 교육의 결핍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진정서들은 빈곤의 결과로 생긴 매춘을 통탄하며 분만 여성의 높은 사망률에 대응하기 위한 산파들의 조직망을 요구한다. 여성의 진정서들은 국민 공동의 이익에 전념하고 경제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여성의 요구나 소집될 삼부회에서의 여성의 대표권과 피선거권의 부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자신의 특수한 요구 사항이 공동의 불만들에 파묻혀 버리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1789년 1월 1일 제3신분 여성의 국왕에 대한 청원서에는 이러한 여성들 스스로의 자제 노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

“폐하 수많은 악폐를 예방하며 권세를 빼앗기보다는 인정받는 존재가 되며 불행을 피하고 생계수단을 갖기 위해 우리는 계몽화 될 것과 일자리를 갖도록 요청합니다.”<sup>11)</sup>

여성의 전반적 문맹상태는 여성 가운데 가장 교양 있고 학식을 지닌, 대부분 부르주아 여성들을 우대 받게 만들었다. 여성의 소망을 명확히 나타내는 진정서들은 수가 적었는데, 여성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진정서와 이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진정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 볼 수 있는 바, 한 부류는 동업조합적 성격의 것으로서 소규모 수공업의 직업적 경제적 개선을 요구하지만 여성들의 생활조건을 문제삼지는 않는다. 다른 부류는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심을 나타낸다. 진정서들은 여성의 조건이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결여에 대해 신랄하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아직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발언은 삼부회 소집의 시점에서 보다 과격화되었다.

10) Jacques Guilhaumou et Martine Lapidé, “L'action politique des femmes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 *Encyclopédie politique et historique des femmes* (Paris : PUF, 1997), p. 140.

11) Ripa, *Les Femmes*, p. 20.

실제로 대혁명 초기를 특징짓는 시위운동에서 여성의 참여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었으니, 여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주권행사에 참여했던 것이다. 1789년 4월 생 탕투안느 교외의 레베이용 공장주에 대한 폭동에 참가한 여성들은 폭력의 교사자 역할을 함으로써 남성들을 선동하였다. 사건 직후 한 생선장수 여인은 방화와 약탈 그리고 '제3신분 만세'를 외친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여성들이 이미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된다. 보다 전통적인 경우는 1789년 봄 식량폭동 때의 여성의 개입으로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강력한 동원화가 확인되었다. 여성들은 원래 빈번히 소요를 일으키는 집합체였던 바,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촉발시킨 것은 시장에서의 곡물공급의 부족이나 곡물가격의 급등 때문이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태의 민중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상황을 토론했으며 그녀들의 분노는 급속히 폭동에의 호소로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성들이 합세하고 사람들이 구제를 요구하면서 시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 당국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들의 요구는 협박과 더불어 곡물 저장소에 대한 습격으로 변질되곤 하였다.<sup>12)</sup>

프로방스 지방의 경우 소요군중 속에는 여성과 아이들의 참석이 빈번히 확인된다. 여성들은 엑스(Aix), 예기에르(Eyguière), 브리놀(Brignoles), 이에르(Hyères), 마노스크(Manosque), 툴롱, 마르세유 같은 여러 지역에서 폭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콩타 브내생(Comtat Venaissin)에서 여성의 봉기 참여는 일반적 현상이었던 바, 여성들은 곡물의 부족 때문에 시장에서의 폭동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다. 아비뇽에서 여성들은 매점 매석자로 간주된 관리의 지택 습격에 가담했는데, 한 여성이 태형에 처해졌지만 대체로 여성에 대한 처벌은 남성보다 덜 가혹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량을 구하기 위한 여성의 동원은 사회적 증오의 표현과 더불어 구체제하의 민중의식 속에 내재했던 여성 자신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의 식량폭동 참여는 남성들에 의해서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것은 여성이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닌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sup>13)</sup>

12) Guihaumou et Lapied, *Encyclopédie politique*, p. 141.

13) *Ibid.*

1789년 봄 정치적 의식의 우세함은 식량요구와 같은 전통적 행동을 동반하였다. 그 해 여름에 도시의 민중운동은 여성의 개입을 경험했지만 여성 성분이 지배적이지는 않았다. 파리에서 여성은 모든 민중운동에 참가했지만 남성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으며 지도자도 소외자도 아니었다. 7월 14일의 희생자 가운데는 여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바스티유의 승리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마리 샤프팡티에(Charpentier)는 봉기 때 장애자가 되었다. 그녀는 바스티유 공격에서 용감히 싸웠으며 전투 중에 부상을 당했던 바, 제헌의회가 제정한 법령에 의해 마땅히 연금 수혜자가 될 자격이 있었다. 7월 14일에 남녀가 혼합된 군중이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기 위해 무장한 채 전투에 가담한 것은 여러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

바스티유 공격의 와중에서 부상을 입고 장애자가 된 남편의 연금지급을 요구하는 한 여성의 청원서에는 여성들의 분전하는 모습이 실감 있게 묘사되어 있다 :

“두 사람 모두 승리 아니면 죽는다는 단단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곳에서 분투 노력했던 바, 행주치마를 포도주 병으로 채우기 위해 몇몇 포도주 상인의 가게들을 뛰어다니는 것도 그녀였으며 바스티유 감옥 도개교의 고리를 부수기 위해 대포에 산탄을 공급한 것도 그녀였다.”<sup>14)</sup>

또한 7월 24일자 「가제트나시오날(La Gazette Nationale)」지는 여성 영웅들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애인 곁에서 남장을 하고 싸우는 18세 소녀와 공격 후에 아들의 시신을 찾는 숲장이 아내의 모습이 그것이다. 숲장이의 아내는 그녀의 냉정함에 오히려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

“이보다 영광스러운 어느 장소에서 내 아들을 찾을 것인가? 그 녀석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축복 받을 일이 아닌가?”<sup>15)</sup>

여름에 대공포의 전달 과정에서도 여성의 개입은 빈번히 입증되지만, 여성들은 풍문들을 릴레이 시키면서 자신들이 겁탈되거나 자녀와 함께 학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굴복함으로써 단지 수동적 역할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여성들은 자녀와 함께 숲 속으로 또는 도로를 따라 도피하기도 했

14) 마그리트 피닝그르(Marguerite Piningre)의 제헌의회 의원들에 보내는 청원서

15) Paul-Marie Duhet(présentation), *Les Femmes et la Révolution 1789-1794*(Paris : Gallimard/Julliard, 1971), p. 46.

다. 1789년 여름, 지방이 엄청난 공포에 빠져 버렸다는 소식에 놀란 국민의회 의원들은 대혁명에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면서 특히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작성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여성의 조건에 대해서는 어떤 암시도 하지 않았다. 마라는 8월 23일에 발표된 자신의 연설에서 거의 만장일치인 의원들의 가부장적 여성관을 요약하고 있다 :

“모든 시민은 주권을 지닌 구성원인 만큼 선거권을 지니며 출생만으로 이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성과 아이들은 공적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장에 의해 대리되기 때문이다.”<sup>16)</sup>

1789년 8월 26일 제헌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했으며 이 선언은 새로운 사회계약의 토대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의원들은 주권을 절대군주인 국왕으로부터 국민의 손으로 넘겼다. 주권은 시민에 의해 인준된,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에서 성차별은 있어서는 안될 문제였다. 당시 ‘여성(femme)’이라는 단어는 빈번히 여성의 정치참여에 반대하는 적대자에 의해 사용되었지만 ‘여성시민(citoyenne)’은 혁명에 참가하거나 혁명을 지지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민(citoyen)이라는 단어는 18세기의 사전 속에서는 남성명사였으며 여성시민은 당시의 정의에 의하면 시민의 아내나 도시민의 아내를 지칭했다. 즉 용어는 여성의 지위가 애매하고 불분명함을 반영하는 바, 여성은 프랑스 국민인 한에서 여성시민이지만 남성의 시민권 속에 포함된 정치적 권리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에스는 수동시민과 능동시민을 구별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신보호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보유해야 하지만 공권력에의 참여는 능동시민만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성을 정치적, 공적 권리로부터 제외시킨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여성의 배제가 잠정적이어야 하며 그것이 자연상태가 아닌 교육상태에 책임이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었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10월 초 베르사유로의 행진 때 실제로 대혁명에 시의 적절하게 개입함으로써 정치분야에 끼어 들었으며 혁명적 여성영웅의 이미지 탄생을 고무시켰다. 파리민중을 궁핍 속으로

16) Guilhaumou et Lapied, *Encyclopédie politique*, p. 142.

17) Ripa, *Les Femmes*, p. 22.

몰아넣은 경제상황의 악화에 불안해하던 여성들은 국왕의 근위대가 10월 1일 궁전에서 연회 중 삼색기를 짓밟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다. 파리 중앙시장과 생-탕트완느 교외의 부녀자들이 울린 경종 소리를 듣고 모여든 여성들은 10월 5일 베르사유로의 출발 때 6-7천 명이었으나 그 수는 점점 증가되어 거의 만 명에 달하였다. 여성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이 혁명적 동원은 국민방위대로 조직된 무장 남성의 합류를 가져왔으며 빵 문제가 동기를 제공했지만 그녀들의 요구사항은 정치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 ‘빵의 행진’이라고 불려진 이 사건은 전통적 식량문제가 으뜸가는 동기였으며 곧이어 ‘여성의 행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그 뒤에도 여성들은 파리는 물론 지방에서의 모든 혁명의 날들에 참석했지만, 미쉴레가 찬양했듯이 10월의 사건만큼 중요성을 갖지는 못했다 :

“남성은 바스티유를 점령했으며 여성은 국왕을 포획하였다. 10월 1일은 베르사유의 귀부인들에 의해 망쳐졌고 10월 6일은 전부가 파리 여성에 의해 만회되었다.”<sup>18)</sup>

이 행진은 ‘빵집 주인과 안주인 그리고 아이들’의 파리로의 귀환을 명백히 하는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다. 미쉴레에 의하면 여성들의 생각은 바로 다음과 같았다 :

“빵이 부족하다면 국왕을 찾으러 가자; 국왕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빵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빵집 주인을 찾으러 가자!”<sup>19)</sup>

폴 마리 뒤에(Paule-Marie Duhet)는 10월의 혁명적 사건의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우리는 10월 혁명이 매우 자발적이며 예상 밖의 진정한 민중적 혁명으로 특히 여성과 관련된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미쉴레와 더불어 인정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여성이 무장한 민중운동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없으며 여성들이 정치생활로부터 더 이상 소외되지 않겠다는 염려와 자신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계속해서 그 점을 입증하고자 원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sup>20)</sup>

18) Jules Michelet, *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 Robert Laffont, 1979), tome 1, p. 246.

19) Duhet, *Les Femmes et la Révolution*, p. 49.

KCS I

---

20) *Ibid.*, p. 50.

여성들은 행진 도중에 지나가는 마차를 세워서 검은 휘장을 찢어버리고 애국파의 휘장을 달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개입은 남성과 구별되는 별개의 것으로, 여성들은 권력을 수도 파리의 중심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대혁명의 지리학을 수정하였다. 국민의회는 10월 12일 파리에 새로이 자리 잡게 된다.

10월 5-6일의 유명한 행진에 참가한 수천 명 여성들의 공통된 근거는 대중으로서의 항의운동을 결정한 일이었다. 베르사유를 방문함으로써 여성 대중은 자신의 정치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로 작정했으며 그녀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평화적 수단이 아니라 힘에 의한 물리적 수단이었다. 이러한 행동방식은 커다란 정치적 효율성을 지녔지만 그것이 반드시 발전되고 심화된 정치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비록 대규모의 여성대중이 다소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보다 신랄한 의식을 지닌 여성집단이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 이들 여성집단들은 새로운 정치적 판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시위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파리 여성들의 요구사항은 대표단의 연사인 마이야르(Maillard)에 의해 낭독되었는데 여성들은 파리의 빵 보급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왕실 근위대의 비애국적 행동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였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일단의 여성들이 검정 휘장을 단 사람들에게 대해 취한 조치였다. 10월 1일 연회 때 왕실근위대의 비애국적 과격행위에 관한 소식은 여성들에게 위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왕비의 검정 휘장에 맞서 삼색 휘장을 달았으며 파리에서는 통행자의 휘장을 단속하기 위해 마차들을 정지시켰다. 검정 휘장을 달거나 아무 휘장도 달지 않은 자들은 귀족으로 취급되었으며 애국적인 삼색휘장을 달도록 강요받았다. 베르사유로 가는 도중에 모든 길에서 검정 휘장을 단 사람들은 체지당하거나 과격한 공격을 받아야 했다. 한 예로 어떤 남성은 자신의 휘장을 찢긴 후 등에 '국민의 배신자' 라고 쓴 채 여성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sup>21)</sup>

휘장들이 그 단순한 상징성 속에서 깊은 정치적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휘장에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혁명

21) Kerstin Michalik, "La marche des femmes parisiennes sur Versailles les 5 et 6 octobre 1789," *Les Femm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tome 1, pp. 59-60.

과 그 개혁에 지지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대혁명을 위해 싸우려는 입장을 명백히 표현하였다. 여성들의 휘장에 대한 개입은 보다 커다란 의미를 지녔던 바, 여성들은 남성들이 지니고 있던 휘장을 자신도 부착함으로써 애국과 여성시민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여성 역시 정치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행동은 수년 뒤 정치적 평등의 상징으로서의 이른바 ‘휘장들의 전쟁’ 때에 다시 주목을 끌게 된다. 휘장에 대한 논쟁은 많은 여성들이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의회에 들어간 여성들 가운데 몇몇은 정의의 상징으로 균형을 의미하는 저울이 그려진 깃발을 지니고 있었다. 깃발을 갖춘 여성의 출현은 소수의 의식화된 여성들이 사전에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며 자신의 요구사항 및 정치적 관심사들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심사숙고했음을 반영하고 있다.<sup>22)</sup> 여성들은 제헌의회를 민중의 새로운 대표기구로 인정함으로써 군주정의 몰락과 전통적 가부장제의 와해를 촉진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베르사유 행진의 이러한 양상들은 대중운동이 대혁명 초의 몇 달 동안에 이루어낸 여성들의 발전된 행동양식의 결과였으며 또한 보다 전반적인 정치적 자각을 향한 첫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잘 입증해주고 있다.

### III. 1790-1792 년의 역할

여성들은 비록 정치적 권리를 얻지는 못했지만 여성시민이기를 원하였으며 새로운 정치적 관행 속에 개입하였다. 애국과 여성들은 혁명적 정치무대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한다. 여성투사들은 파리에서 특히 수가 많았지만 지방에도 역시 상당수가 존재하였다. 코르들리에 공화파 로베르 (François Robert)의 아내로서 여성투사 가운데 한 사람인 케랄리오(Louise de Kéralio)는 새로운 여론과 의사소통 공간의 형성에서 우애협회의 역할을 명백히 하였다 :

“인간 각자는 주권의 필요 불가결한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 모든 협회는 당연히 법의 본질과 영향에 관하여 토의하는 협회이어야 한다 ... 우애협회가 자신의 내부에서 여론을 수립한 후 그것을 동향인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협회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sup>23)</sup>

22) *Ibid.*, p. 60.

K C I

---

23) Guillaume et Lapied, *Encyclopédie politique*, p. 144.

애국과 여성 롤랑(Roland)부인은 공화주의 운동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파리 부르주아 가정 출신인 그녀는 구체제의 특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지식을 통해 소신 있는 공화주의자가 된다. 그녀는 지적, 행정적 업무에서 남편의 협력자 역할을 담당했으며 1792년에 남편이 내무상에 임명되었을 때는 그 격려자가 되었다. 그녀의 살롱은 애국파들이 드나드는 중심 공간이었으며 지롱드파의 정책을 구상하는 장소로 제공되었다. 그녀는 여성이 선행을 장려하며 조국에 유익한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치적 일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어떤 역할이 우리 여성에게 적합한지 알고 있으며 그 역할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 회의들은 내 눈앞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이외에 나는 아무 참여도 하지 않았다.”<sup>24)</sup>

남성답고 대담한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은 때로는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데,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의 경우가 그 본보기였다. 몽토방(Montauban)에서 정육점 집 딸로 태어난 구즈는 파리로 가서 세속적, 문학적 경력을 쌓았다. 정당하고 지각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는 애국파 작가로서, 그녀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정치에 관한 간결한 개념만을 지녔으며 유창함보다는 순박한 문체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재능은 평범하고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나는 사물의 상태를 멀리서 조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겪은 불평등에 입각하여 여성의 운명을 개탄하고 여성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려는 남성들의 여성 차별주의를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녀는 ‘너무도 불행한 여성, 끊임없이 종속된 여성, 고통으로 너무나 불행한 여성’이라는 의식의 토대 위에서 주저 없이 자신의 ‘환상적 확산’을 펼쳐나간다:

“여성은 현실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도 선천적으로 다 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 아름다운 성은 여성을 권리 상으로 또는 통찰력과 정치면에서 남성보다 우월하게 만든다. 여성들은 연구도, 깊은 인식도 없이 이런 장점을 검비하였다.”<sup>25)</sup>

페미니즘의 개척자요 혁명주의자인 구즈는 혁명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대혁명에 모든 정성을 다 바쳤다. 그녀가 믿기 어려운 열정을 가지고 대부분 구술

24) *Ibid.*

25) *Ibid.*, p. 145.

하여 받아 적게 한 정치적 논설, 소설과 희곡 등의 저작은 비록 표현 상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대목은 있지만 서민층을 위한 진정한 사랑과 관용, 공익에의 열정 등 확실한 정치적 감각을 드러낸다. 그녀는 입헌 군주정에 애착을 가졌지만 민중의 빈곤과 고통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과 아이들의 보호를 요구했다. 그녀는 투기업자와 매점자를 혐오하고 부정한 재산은 민중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조국에 수치이며 불명예라고 주장하고 사치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였다. 1791년 6월 21일 국왕 일가의 도피사건은 그녀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용감하게 루이 16세를 배신자라고 비난하였다.<sup>26)</sup> 9월에 새로운 헌법 초안이 완성되고 단지 ‘남성의 권리(droits de l’homme)’만이 언급되자 그녀는 ‘여성의 권리(droits de la femme)’를 소리 높여 외치게 된다.

1791년 9월에 발표된 구즈의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남성들에 의한 여성 평등개념의 삭제에 체계적으로 반대하는, 여성권리에 관한 생생한 역사적 자료이다. 그녀는 여성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하고 자연적인 것이라 천명하고 17개항으로 된 권리를 내세웠다. 그녀는 남성들이 대혁명의 여성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고 권위 있게 말한 유일한 존재였다.

“남성이여, 그대는 정당한 능력을 지녔는가? ... 누가 그대에게 여성을 탄압하는 최초의 권한을 지닌 제국을 주었는가? 그대의 힘인가, 그대의 재능인가? ... 창조주의 지혜를 관찰해 보자. 자연의 실천 속에서 암컷과 수컷의 성을 찾아보고 관찰해 보자. 그대는 도처에서 암수가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인 바, 도처에서 암수들은 이 불멸의 결합에 어울리는 전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sup>27)</sup>

계속하여 그녀는 남성들의 편견과 무지, 전제성에 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괴팍하고 눈 먼, 학문으로 몸이 부어오른 그리고 계몽의 세기에 퇴화되고 엄청난 무지 속에 있는 남성은 모든 지적 능력을 부여받은 여성에 대하여 폭군으로 군림하기를 원하고 있다.”<sup>28)</sup>

26) Louise Laflandre-Linden, *1789-1793 Les Femmes*(Paris : SPM, 1994), pp. 214-215.

27) Paul Noack, *Olympe de Gouges*(Paris : Fallois, 1993), p. 187.

28) *Ibid.*, p. 188.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그 서문에서

“어머니들, 딸들, 자매들, 국민의 여성 대표자들은 국민회의의 구성원이 되기를 요구한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멸시가 공공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을 고려하여 하나의 엄숙한 선언 속에서 여성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자연권을 제시하기로 결의한다”

고 선언하고 여성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아름다움과 용기, 어머니로서의 고통에 있어 우월한 여성은 최고신의 후원 하에 최고신 앞에서 여성과 여성시민의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인용해 보면, 제1항은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권리 상 남성과 동등한 상태에 있다.” 제2항은 “모든 정치결사의 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자연권과 소멸되지 않는 권리들의 보전에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제10항으로서 그것은 여성의 연단에서의 발언권 요구와 관련된다 :

“비록 중대한 것이라 해도 아무도 자신의 견해로 인해 불안을 느껴서는 안되며,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설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단에 올라설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 단 자신의 의사표현이 법으로 수립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sup>29)</sup>

후기는 여성들에게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며 결혼을 신뢰와 사랑의 무덤이라고 단언하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계약으로 결혼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성의 경종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대들의 권리를 인식하라. 강력한 자연의 제국은 편견, 광신주의, 미신과 거짓을 더 이상 비호하지 않는다. 진리의 횃불은 모든 어리석음과 횡령의 구름을 일소해 버렸다. 힘을 증대시킨 노예적 남성은 자신의 감옥을 파괴하기 위해 그대들의 힘을 이용하려는 필요성을 찾는다. 해방된 그는 자신의 여성 동반자를 불공정하게 대한다. 오, 여성들이여! 언제

29) *Ibid.*, pp. 189-191.

그대들은 눈 먼 상태를 멈출 것인가? 그대들이 혁명 속에서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 보다 뚜렷해진 경멸, 보다 각별해진 멸시뿐이다 ...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무엇이 남는가? 남성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확신뿐이다.”<sup>30)</sup>

1792년 8월 10일 사건에서 민중을 지지한 구즈는 공화주의자임을 자처했지만, 지롱드파 쪽으로의 가담과 루이 16세의 신변보호를 요청함으로써 몰랑부인과 마찬가지로 자코뱅파의 의심을 받게 된다. 온건파로 고발당한 그녀는 결국 몰랑부인 보다 며칠 앞서 1793년 11월 3일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된다. 한편 공화주의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국왕의 배신행위를 비난하였으며 일부는 루이 16세 폐위운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여성의 동원화는 구제 작업장의 폐쇄로 인한 매우 흥분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 여성들은 1791년 7월 17일 제출한 집단 청원서에 서명하였으며 상 드 마르스 학살사건에서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 시장 바이이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민방위대가 발포했을 때 희생자들은 남녀가 따로 없었다. 이러한 유혈 탄압행위는 ‘민중의 벼’를 비롯한 혁명과 신문들의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민중의 벼’은 이 사건을 “무장하지 않은 평화로운 시민들,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몹서리치는 학살”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모임과 클럽의 회의들에 빈번히 참가하였으며 길거리, 시장, 선술집, 클럽의 입구에서 대혁명이 표방하는 동기를 옹호하였다. 민중여성들은 자신의 노동을 위해서나 가족 부양의 책임 때문에 거리의 모임들에 자주 참여했으며 특히 시장은 도시여성은 물론 농촌여성들의 만남과 토론의 장소였음이 분명하다. 혁명운동에 참가한 여성들의 성분은 고립적이기도 단일한 것도 아니었으며 결사운동에서의 정치적, 실제적 참여는 집단적 현상은 아니었지만 결코 무시할 규모는 아니었다. 여성투사들의 경우에는 남녀 혼성 클럽들 내에서 회원으로 수용되거나 아니면 여성클럽을 별도로 설립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남녀혼성인 클럽은 드물었던 바, 매우 빈번하게 여성들은 민중협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는 있었지만 의결권은 갖지 못했다. 협회의 기록에 의하면 여성들은 종종 너무 시끄럽고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써 회의진행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클럽 안에서 여성의 활동 가능성은 경우에 따라 매우 달랐는데, 많은 협회에서는 여성들이 회의에 참관하는데 만족해야 했으며 몇몇 협회에서는 완전

30) *Ibid.*, p. 193.

한 회원으로 간주되었다. 아를르(Arles)에서 여성들은 회원 총수의 20%를 차지하면서 처음부터 클럽의 회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협회가 중요성을 갖게되고 가입자 수가 60명에서 700명으로 증가되었을 때 여성 수는 전체의 1-2%를 넘지 않았다.<sup>31)</sup> 아르데쉬(Ardèche)의 라르장티에르(Largentière) 협회는 여성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남성들은 회계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직을 독점하였다. 파리에서는 ‘남녀 애국가 우애협회’가 교사 당사르(Dansard)에 의해 1790년 2월에 설립되었다. 이 협회의 여성들은 회원증을 지녔으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갖고 있었다. 6명의 서기 가운데 2명은 여성이었으며 회장을 제외한 직책은 남녀 구별 없이 맡겨졌다. 여성들은 협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으며 국왕의 도피기도 후에는 코르들리에 클럽과 함께 군주정 폐지를 위해 공동전선을 폈다. 이 협회의 뒤를 이어 수도 파리에 많은 우애협회들이 설립된 바 있다.

여성협회들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급속하게 증가되었다. 1789-1793년 사이에 56개의 여성클럽이 확인되었는데 그들은 대개 같은 도시의 남성클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sup>32)</sup> 빈번히 여성협회들은 전통적인 자선행위, 즉 교육이나 구호소 그리고 빈민을 위한 취로 작업장 조성에 종사했다. 여성협회들은 선서파 사제들의 보호에 으뜸가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몇몇 협회들은 정치적이며 급진적인 활동에 개입하기도 했다. 여성협회들은 또한 축제의 구성이나 청원서의 발송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구성원들은 부르주아지와 장인층 및 상점주 출신이 많았지만 별로 유복하지 못한 소수의 여성시민들도 존재했던 바, 무엇보다도 도시적 현상을 지닌 것이 특징이었다.

디종에서 1791년 5월 30일 설립된 ‘여성 제헌동지 클럽’은 애국가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대부분 부르주아 출신인 400명의 여성회원을 보유했다. 이 클럽의 목적은 애국심과 시민적 미덕을 발전시키며 자녀들을 조국애와 자유의식 속에서 양육하는 것이었다. 이 클럽의 여성들은 애국적 축제일의 준비에 참여하고 축제행렬 속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하며 애국적 선서를 하고 혁명찬가를 불렀다. 여성들은 선서파 성직자들을 지지하며 식량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성클럽과 공조하였다. 클럽의 여성들은 또한 병사들의 원조를 위한 기부금 모금, 병사들의 군복을 제조하는 일, 수녀들을 대

31) Guilhaumou et Lapied, *Encyclopédie politique*, p. 146.

32) *Ibid.*

신하여 환자를 위한 병원과 구호소의 일에 종사하는 등 광범위한 박애활동을 조직하였다. 1791년 9월에 클럽의 여성들은 애국과 여성들에게 최소한 전쟁 동안 만이라도 국가에 협력하기 위해 협회에 모일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국 83개 도청소재지의 클럽들에 발송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브장송에서는 1792년에 여성시민 모그라(Maugras)의 적극적 인도로 '자유 평등 여성동지 협회'가 설립되었다. 회원들은 아이들을 위한 애국적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에 만들었으며 빈민여성을 고용하는 군복 및 군용담요 제조공장을 설립하였다. 회원들은 선서파 사제를 지원하고 물가통제를 위해 자치시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민공회에 청원서를 작성해 보내는 한편, 1793년 초에는 새로운 헌법에서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카스틀란(Castellane)에서는 1792년 6월 3일 애국과 남성들의 도움을 받아 여성협회가 설립되었다. 여성들은 협회의 과업을 수행하고 회원들을 교육시킬 두 명의 남성 위원을 파견하도록 남성협회에 요구하였다. 여성들은 남성협회에 가맹하고 의존하기도 했지만 여성 스스로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집안에서 살림과 관련된 일에만 종사하도록 강요받아왔지만 우리는 이제 용기를 북돋우며 평화와 단결을 고무함으로써 유용한 존재가 되고 헌법을 유지할 수 있다.”<sup>33)</sup>

아를르에서는 1792년 10월에 여성클럽이 두 명의 여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 여성은 선서사제 기베르(Guibert)의 가정부였고 다른 여성은 이혼녀였다. 이 클럽은 60명의 다양한 사회계층으로 구성된 회원들로 출발했던 바 그 중에 22명은 이미 폭동에 참가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클럽의 회원들은 선서사제들과 강한 유대를 맺고 있었으며 혁명축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지만 군대를 위한 모금과 구호소의 유지 등 전통적 활동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파리의 경우 여성들을 클럽으로 조직하려는 시도는 대혁명 초에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주도권은 에타 팜 텔더(Etta Palm d'Aëlders)에게 있었던 바, 네덜란드 출신으로 파리에 거주하던 그녀는 여성의 정치적 참여에 관한 연설을 통해 유명해졌다. 1791년 3월에 에타 팜은 '여성 진리동지 자선 애국협회'를 설립했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여성들은 대혁명 초부터 가톨릭 종교에의 애착을 통해 이따금 어떤 주저함

33) *Ibid.*, p. 147.

을 나타냈으며 혁명적 폭동에 참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혁명 폭동에 참가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몽토방에서 정치적 투쟁은 위그노의 지배를 염려한 가톨릭 민중의 불안과 신교파 사이에서 종교전쟁의 양상을 띠었는데, 여성들은 수많은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비뇽에서는 여성들이 1791년 10월 혁명과 레스큐에(Lescuyer)의 살해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 집단적 욕구발산의 형태를 띤 이런 행동의 결과로 투옥된 13명의 여성은 뒤에 글라시에르(Glacière)학살의 희생양이 되었다. 아를르에서 여성들은 1791년 여름 애국파에 격렬하게 대항한 '닝마주이파(chiffonjstes)'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였다. 그녀들은 외형상 반혁명 가담자의 25%를 형성했지만 적극적 가담자는 8-9% 뿐이었다. 그녀들 가운데 많은 수는 사치품 관련 직종에 종사했고 몇몇은 하녀였다. 혁명파가 권력을 장악한 기간에 그녀들에게는 민중적 형벌이 가해졌는데, 이 신앙심이 강한 여성들은 옥살과 폭행의 와중에서 굴욕적인 '당나귀 행진'을 감수해야만 했다. 1791년 봄부터 1792년 봄까지 특히 슈앙파 지역에서 종교문제를 둘러싼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였다. 신서거부 사제를 보호하고 신서파 사제에 대항한 이 독실한 여성들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의 안녕과 구원을 염려하여 폭력행위에 앞장섰다.<sup>34)</sup>

여성들은 대혁명 편에서 결코 무기력하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주권을 지닌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여성투사들의 의지는 투표권과 토의권의 행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표현될 수는 없었으며 이러한 법적 소외에 대항하여 봉기한 여성시민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애국파 여성의 존재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감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려는 의지는 물론 시위와 무장행렬에서의 구체적 요구를 통해 확인된다. 1792년 3월 6일, 여성 국민방위대 편성을 위한 315명 파리 여성의 청원서가 폴린느 레옹 (Pauline Léon)에 의해 입법의회에 제출되었다. 청원서는 "우리는 주권을 지닌 여성시민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만으로 구성된 독자적 국민방위대의 편성을 요구했다. 청원서는 비록 의원들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시민권 개념의 출현을 목격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 고유의 권리와 무기를 들고 조국을 수호하려는 시민적 의무의 결합이라는 정치의식에서 나온 것이었다.<sup>35)</sup> 특히 1792년 6월 20일 킬르리 궁 침입 때 여성

34) *Ibid.*, p. 148.

35) Darline Gay Levy and Harriet Branson Applewhite, "Women and Militant Citizenship in Revolutionary Paris," *Les Femm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들의 무장행렬 참여는 무장한 민중동원에서의 여성의 개입과 함께 군주정에 대한 공화주의 운동의 역동성을 잘 나타낸다.

이러한 급진적 운동과 관련된 여성 가운데는 파리를 무대로 개성을 한껏 발휘했던 테르와뉴 드 메리쿠르(Théroigne de Méricourt)를 빼놓을 수 없다. 자영농 출신인 그녀는 1789년부터 국민의회에 방청석에 부지런히 참석하였으며 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투사의 상징인 ‘아마존 여전사’의 복장을 하고 다녔다. 메리쿠르는 1792년 3월 25일 ‘미넴브(Minimes)우에협회’에서의 연설에서 “여성시민이여, 우리는 왜 남성과 경쟁하지 않는가? ... 무장하자 ... 프랑스 여전사 군단의 명단을 작성하자”라고 선언하였다.<sup>36)</sup> 이처럼 무장권은 주권의 소속을 상징했으며 몇몇 여성은 무장한 여성 국민방위대나 여성부대의 구성을 원했지만 결국은 거부당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혁명을 위한 여성들의 무장개입 의지는 계속해서 표명되었다. 1792년 7월 31일 ‘호텔 드 빌(Hôtel de Ville)구’의 여성들은 진정한 여성시민이라면 수도 방위를 위해 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지방 역시 여성들의 애국적 동원을 위한 전선에 바쳐졌다. 1792년 3월 20일 망스(Mans)에서는 애국과 여성시민 대표단이 자치 시에 대해 여성을 무장시키기 위한 발언권을 얻었으며 그녀들의 발의는 민중협회의 지지를 얻게 된다 :

“자신의 태생에 자부심을 지닌 여성들은 우리의 조상인 골(Gaul)여성들을 본보기로 삼아 전쟁터로 가기를 요청한다.”

같은 시기에 엑상 프로방스 부근의 에기유(Eguilles)에서, 마르세유의 애국과 전도사 몽부리옹(Monbrion)은 아마존 여전사로 구성된 여성부대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성들의 애국심을 강조한다:

“이들 용감한 여성시민들은 남편들이 땅을 경작하는데 몰두하는 동안, 우리가 소총으로 무장하여 공적인 일의 안전을 돌보아야한다는 것과 조국에 대한 모반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일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7)</sup>

(Toulouse :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1989), tome 1, p. 65.

36) *Ibid.*, p. 66.

37) Guilhaumou et Lapied, *Encyclopédie politique*, p. 150.

1792년 이후 지방의 많은 민중협회들은 과격화되고 정치활동에 보다 활발한 역할을 담당했던 바, 협회들은 연방주의에 대하여 스스로 동원되거나 국민공회에 청원서를 발송함으로써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여성의 정치적 평등과 투표권에 관한 요구들은 비록 매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무기를 들 권리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실제로 여성들은 조국을 위해 전장에서 싸웠던 바, 그 가운데 44명의 여성 병사에 관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몇몇 여성은 남편이나 부친과 함께 출정했고 어떤 여성들은 남자로 변장하고 출발하였다. 그녀들은 용감성과 무공을 인정받았는데, 1794년 7월까지 니에브르(Nièvre) 1연대에서 싸웠던 뒤케(Félicité Duquet)는 동료 전투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녀는 자신이 조국에 대한 신성한 사랑에 의해 남성으로 위장하고 국가방위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군했다고 설명하였다. 혁명주의자들은 이들 용감한 여성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콜로 데르브와가 찬사와 함께 지적했듯이 그녀들은 여성의 본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였다 :

“나는 그녀를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선언하는 바, 그녀는 가장 용감한 전사들처럼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죽음과 과감하게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1793년 4월 30일 법령은 세탁부와 종군상인을 제외한 모든 여성을 군대로부터 몰아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병사들은 나폴레옹 치하의 군대에서도 발견되었다.<sup>38)</sup>

1792년 8월 10일은 바스티유 사건의 경우처럼 본질적으로 남성의 날이었다. 그렇지만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상명령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여성들은 툴리 궁 공격에 가담했으며 그녀들 가운데 3명은 국왕에게 시민의 혁명 모를 쓰게 하는 영웅적 행동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렸다. 여성들은 1792년 여름의 단죄적 상황에서 뚜렷한 참여를 보였으며 그 중요성은 식량문제와 관련된 폭동들에서 보다 오히려 더 컸다고 보겠다. 아를르에서는 이웃 도시로 보내는 ‘아를르의 도살자’라는 별명을 지닌 처벌 원정대 속에 여성집단이 존재했는데, 여성들은 군대식으로 조직되고 소총과 대검으로 무장한 채 당나귀를 타고 있었다. 여성들은 반혁명이 매우 강하고 갈등이 많은 이 도시에서 혁명파에 의해 주도된 활동에 대거 참여하였다.

카르카손에서는 풍작 후 밀수출의 중요성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38) *Ibid.*

1792년 8월 잔느 에스타블레(Jeanne Establet)라는 과부이며 낱팜팔이꾼인 한 여성의 주도 하에 천명 이상의 남녀가 격렬한 행동을 보였다. 군중들은 곡물을 하선시키고 그들이 정한 가격으로 팔도록 시도한 뒤, 도시를 포위하고 관청과 상점들을 습격했으며 그 와중에 베르디에(Guillaume Verdier)라는 한 관리가 피살당하였다. 소요 중에 표명된 요구는 대부분 곡물거래와 관련된 전형적인 것이었으며 앞서나 지페로의 납부 요구가 추가되었다. 폭동이 끝난 뒤 세 명의 지도자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에스타블레가 포함되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관리 베르디에를 때렸다는 것이며 그녀는 햇볕에 검게 탄 거친 여성의 전형으로서 ‘흑인 잔느’로 전설 속에 기억될 것이다. 리옹에서는 1792년 9월 식료품 가게에 대한 습격 때, 여성들이 ‘여성법정’을 임시로 개설하고 식료품을 정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하였다. 9월 20일자 ‘리옹 신문’에 의하면 봉기한 여성들은 토의협회를 구성하고 과격행위를 막기 위해 창으로 무장하였다. 여성들은 선언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민중주권과 생존권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sup>39)</sup> 여성이 많은 수를 차지한 이러한 행동은 공화정 수립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 IV. 1793-1794 년의 역할

1792년 8월 10일 봉기로 왕권이 정지된 뒤, 9월 22일의 공화정 선포는

“한 손은 권표 막대기 묶음에 갖다대고 다른 한 손은 자유의 모자(혁명모)를 얹은 창을 잡고 서있는 여성”

을 공화국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여성적 상징은 국민과 자유의 상징적 이미지들과 결합된 채, 1793년부터 더욱 확고해지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여성들의 정치무대への 개입은 대혁명 동안 애국파 여성의 정치적 존재를 부각시키는 한편 여성을 정치무대에서 추방시키려는 남성들의 적대적 운동을 고무시켰다. 이렇게 하여 1793년 혁명정부의 수립과 새로운 인권선언에 관한 국민공회 의원들의 토론 속에서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었다 :

“여성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9) *Ibid.*, p. 151.

고 주장한 아마르(Amar)의 견해(1793년 10월의 발언)와 “나는 성적 차별이 어떻게 권리들의 평등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기요마르(Guyomar)의 주장(1793년 4월의 발언)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sup>40)</sup>

아마르를 비롯한 국민공회 의원의 대다수는 ‘자연적 특성’을 명분으로 여성의 정치분야에 대한 참여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자연에의 의존은 여성을 지적인 일에 부적합하며 그 흥분하기 쉬운 기질 때문에 위험하다고 간주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차이를 특징짓도록 허용한다. 반대로 여성에게 유리한 소수의 주장은 남녀의 차이는 개인의 외모와 비교하여 부차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다. 기요마르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성 주장에 영향을 미친 ‘성적 편견’은 정의와 주권에 위배된다고 반대를 표명하였다. 르퀴니오(Lequinio)는 인간 권리의 완전한 개념을 명분으로 ‘귀여운 성’이나 ‘남성의 노예’라는 표현을 거부하였다. 여성을 정치적 권리에 접근시키려는 이들 소수 의원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의원들은 점차 그들의 대변자인 아마르로 하여금 여성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탄압적 입장을 취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도미니크 고디노(Dominique Godineau)가 상세하게 조사한 것처럼 1793년에 여성의 정치적 역할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파리는 물론 지방에서 애국과 여성의 민중협회 내에서의 위상은 커졌으며 여성의 역할은 지역 별로 연방주의에 대한 저항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1793년 여름에 망스(Mans) 클럽에서 한 여성시민의 탁월한 연설은 그녀를 회원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여성들을 협회 회원으로 받아들여게 만들었다. 그 협회는 여성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만든 불평등과 부당함의 흔적을 제거하기를 원하면서 그 지식과 시민정신이 조국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여성을 협회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망쉬(Manche)지방의 발로뉴(Valogne) 협회는 1793년 9월에 25명의 산악과 여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남녀 혼성 협회가 되었으며 한 주 뒤에는 여성이 공동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 이후 공화력 2년 플뤼비오즈까지 여성시민은 회원수의 13%를 차지한 채 협회 일에 참여하였다. 여성 회원들은 특히 가재와 봉대를 준비하는 등 조국에 봉사하는 강한 열정을 드러냈다.

아를르에서는 여성클럽이 폐쇄된 뒤 많은 여성이 자코뱅 클럽에 가입했는

40) Guilhaumou et Laped, *Encyclopédie politique*, p. 152.

데, 몇 달만에 여성회원수는 650명으로 전체 회원 1100 명의 과반수를 훨씬 넘어섰다. 여성들은 선서를 한 뒤 완전한 회원으로 간주되었으며 공식적으로 무기소지가 허용되었다. 무기들은 단죄 원정 때 이미 탈취한 것들이었다. 여성들은 1793년 11월 한 광장에서 마라의 입상을 건립하며 그를 기리는 축제에서 특별석을 차지했으며 단두대를 끌고 다니면서 위협적 행렬의 주요 구성원을 형성하였다. 여성들의 연방주의 운동에의 참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이한 여러 증거들은 연방주의 지역에서는 물론 연방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여성의 참여를 명백히 나타낸다. 마르세유에서는 구민운동이 1793년 봄에 실권을 잡았던 바, 공화파 여성들은 구민회의의 연단을 차지하고 몇몇은 연단에 올라가서 국민공회에 반대하는 군대동원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는 연설을 행하였다. 1793년 8월 7일 제5구의 한 여성시민은 정력적인 말투로 공화주의적 용기를 과시하였다 :

“시민들이여, 그대들은 전투에서의 죽음보다 살해당하기를 선택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대가 죽음을 원한다면 무기를 들고 영웅이 되라. 노예로 사는 것은 바로 매일 죽는 것이다.”<sup>41)</sup>

파리에서의 식량위기의 악화는 민중운동의 과격화를 부추겼으며 여성들의 식량과 생필품 요구는 처음부터 상퀼로트 운동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한편 1793년 봄부터 가을까지 여성들의 소외에 대한 자각은 혁명운동 내부에서 여성의 정치적 지위의 평등을 위한 다방면의 행동을 고무하였다. 인권선언이 남녀 모두에 공통적이어야 하며 남성의 권리는 동시에 여성의 권리임을 주장함으로써, 파리의 여성시민들은 민중주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은 선거제도로부터의 법적 제외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의해 거부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시민권을 과시해 보려는 의욕을 나타내었다. 1793년 초의 권리요구 운동과 관련된 여성들은 노동자, 여상인, 하녀 등 무엇보다 민중계층의 여성이었다. 여성들의 물가에 대한 소망은 매점자 및 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대항하려는 의지를 수반하였다. 그러므로 파리의 여성운동은 격앙파(Enragés)와 가까우며 자크 루(Jacques Roux)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1793년 2월 24일 일단의 파리 여성들은 빵과 비누를 요구하고 매점자와 투기업자의 처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민공회에 제출하러 갔다. 그러나 여

41) *Ibid.*, pp. 153-154.

성집단은 냉대를 받았으며 분노하여 의회를 떠나면서 “자녀들이 우유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요청을 다음 날로 연기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국민공회 앞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튿날 식료잡화상이 많은 중심 가에서 폭동이 발생했으며 소요자들은 식료품점을 공격하고 비누, 설탕, 양초, 설탕 등을 싼 가격에 가져갔다. 이러한 행동에서 여성은 다수를 차지했지만 빈번히 주도권을 쥔 것은 남성들로서, 그들은 가게문을 부수고 위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가택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폭동의 과정에서 남녀 사이에는 역할의 분담이 확인되는 바, 여성들은 폭동을 선동하고 남성에게 합류하도록 압력을 가한 뒤 대개 주도권을 장악한 남성들 곁에서 폭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파리 중앙시장에서 일어난 폭동은 신속히 진압되었으며 자코뱅파는 이러한 폭력행위를 신생 공화국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비난했지만 결국 민중의 요구에 동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반면에 지롱드파는 이러한 민중의 요구에 반대함으로써 민중운동과의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여성투사들은 지롱드파에 대한 산악파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여성들의 정치적 실천에서의 독창성은 1793년 5월 10일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시민 협회’의 공식적 설립과 함께 명백해 진다. 그것은 여성만의 협회로서 주목적은 공화국 적들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방법을 토의하는 일이었다. 협회의 지도자들은 소부르주아지에 속했지만 회원은 민중 가운데서도 동등하게 모집되었는데, 회원 수는 170명 정도로 그 중에 서명할 줄 아는 회원은 2/3를 차지했다. 가정의 수호자를 자처한 여성들로 구성된 이 협회는 지롱드파의 몰락과 공포정치의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협회는 1793년 봄과 여름 동안 그 영향력을 두려워하는 지롱드파 의원과 정탐꾼은 물론 클럽과 혁명당국에 의해 혁명운동의 으뜸가는 세력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이 협회는 코르들리에 클럽과 긴밀히 연계되었으며 지롱드파에 반대하는 소요의 전파자 역할을 했던 바, 협회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선전활동은 물론 소요를 일으키고 봉기를 호소하는 한편 국민공회와 구들, 가두시위와 관련된 모든 정치활동에 개입하였다.<sup>42)</sup>

여성들은 무기를 들고 대혁명을 방어하기를 원하였다. 5월 1일부터 폴린느 레옹은 18세부터 50세까지의 여성들로 하여금 무기를 들고 방데 반란을 쳐부수러 가기 위한 군대를 편성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대표단을 이끌고 자코뱅

42) *Ibid.*, p. 155.

클럽에 갔다. 5월에 애국파 여성들은 매일 국민공회 앞에 집결하여 지롱드파에 대한 봉기를 부추기면서 8월 10일의 날을 다시 시작해야 하며 부자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애국파 여성들은 의회의 방청석에서 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산악파 의원에게는 박수갈채를, 지롱드파 의원에게는 야유를 보냈다. 의회 방청석의 지속적 참석은 정치분야에 개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성들은 의원들에 대한 감독을 통해 주권참여를 실천했던 것이다.

여성들은 1793년 5월 31일-6월 2일의 봉기를 시작하고 스스로 참여했던 바, 그 날은 여성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통해 주권을 지닌 구성원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날이었다. 6월에 여성투사들은 자크 루가 표명한 급진적 요구사항들을 지지했으며 여름의 민중운동, 특히 코르들리에파가 주도한 공포정치의 일정에서 으뜸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6월 25일 격앙파가 국민공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 폭동이 발생했을 때 맨 처음 폭동을 촉발시킨 세탁부들은 비누 선박으로부터 짐을 내리고 임의로 가격을 매긴 뒤 상품을 분배하였다. 여성들은 7월 13일 마라가 암살된 뒤 그를 기리는 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자유의 순교자로서 공화국과 동일시된 마라의 시신 둘레에는 진정한 스펙타클이 구성되었는데, 거기에는 공포정치의 혁명적 의사일정으로 귀착되는 방어와 복수의 열망이 표현되었다. 여성들은 밤을 새워 마라의 시신을 지켰으며 장례식 날인 7월 16일에는 그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를 모으고 피로 물든 속옷과 목욕통을 들고 행진하였다.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시민들'은 세상을 자유와 마라 같은 인물로 가득 채울 것을 국민공회에 맹세하였으며 송시를 낭독하고 마라의 머리에 불멸의 관을 씌웠으며 그를 위해 울며 꽃을 던졌다.

클레르 라콩브와 폴린느 레옹의 영향을 받은 혁명적 여성시민들은 비록 정치적 동질성은 없었지만 격앙파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여성투사들은 대중시위에 참여함으로써 공포정치의 의사일정을 시행하도록 국민공회에 압력을 넣었으며 통제적 경제체제의 수립과 행정권의 구성을 강요하였다. 혁명적 여성시민들이 여름 동안 주요 구성원을 이루었던 혁명운동은 부분적으로 만족을 얻었지만 여성 클럽들은 국민공회에 의한 중앙집권적 탄압정책의 희생양이 된다. 혁명정부의 구성은 구(Section) 회의 상실화의 폐지는 물론 격앙파의 지도자인 자크 루와 바를레(Varlet)의 체포를 동반하였으며 르클레르(Leclerc)로 하여금 신문발간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1793년 10월 20일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시민 협회'는 해체되고 여성클럽들은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여성의 자연

적 소명과 양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10월 30일 법령에 의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혁명의 진행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화력 2년까지의 정치적 실천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켰다. 여성들은 이론적으로나 합법적으로 선거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빈번히 그리고 떠들썩하게 선거에 개입하였다. 선거가 진행중인 장소의 입구 또는 방청석에 집결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개입을 통해 투표의 방향을 유도하려고 빈번히 시도하였다. 1793년 헌법에 관한 국민투표 때에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여성의 지지를 알리는 수많은 서신이 국민공회에 쇄도하였다. 지방에서는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혹은 남성의 뒤를 따라 최소한 30개 선거회의의 투표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리 여성들은 몇몇 위급한 시기에 규정을 벗어나 예외적으로 구민총회에서 투표한 경험이 있었다. 여성들은 또한 1793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파리 민중운동의 기반을 형성했던 민중협회 안에서도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파리의 여성투사들은 민중협회를 통해 실제로 구역의 정치활동을 감독하고 새로운 혁명적 사회성의 수립에 참여했으며 이런 현상은 파리 교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sup>43)</sup>

여성들은 혁명과 군대에 편입될 수 있었는가? 당시의 시대적 통념으로 볼 때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1792년부터 통령정부까지 정부 당국은 군복과 계급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이러한 여성배척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투에서도 남성과의 불평등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조국의 부름 앞에는 남녀의 구별이 따로 없었던 바,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선포된 이후 많은 여성들—특히 하층민 출신의 여성들—은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병적에 등록되기를 원했다. 그 동기는 대부분 남편이나 부친, 오빠나 약혼자, 애인을 따라가기 위해서였고 때로는 실업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바로(Alexandrine Barreau)는 22연대에 복무하는 타른(Tarn)의 척탄병인 남편과 오빠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그들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피레네 군에 소속되어 척탄병으로 근무하였으며 1793년 8월 13일 알로키(Alloqui) 보루 공격에서 노련한 병사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민첩함과 용감성을 발휘하였다. 공화국 군대에 복무하기 위해 여성들은 남성의 제복을 입

43) *Ibid.*, pp. 156-157.

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랭스의 부르가(Elisabeth Bourgas)는 레스페쉬(Nicolas Respeche)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들어갔다. 뒤케(Félicité Duquet)는 17세에 입대했는데, 그녀는 전투에서 여성도 남성과 다름없이 용감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며 니에브르(Nièvre) 1대대에 소속되어 리용 공략에서 맹렬히 활약하였다.<sup>44)</sup>

기병 24연대에 등록된 사뮈(Reine Chapuis) 역시 17세 소녀로서 남자 제복을 입고 복무하다 발각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을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결정에 한사코 반대하여 국민공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나는 5명의 오빠들의 본보기 — 3명은 북부군에, 2명은 방데 파견군에 복무했다 — 에 따르지 않는다면 혈관 속에 흐르는 피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고 믿었다 ... 유일한 소망은 나의 군복무가 국민공회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며 기병 24연대에서 계속적으로 복무하도록 허가를 얻는 것이다 ... 나는 가능한 한 용기와 행동을 배가할 것이며 여성의 팔이 남성의 팔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공화국에 입증해 보일 것이다.”<sup>45)</sup>

또 다른 불굴의 용기를 지닌 여성으로는 30세의 파리 여성인 포브르(Fauvre)부인을 빼놓을 수 없다. 그녀는 센느(Seine)도 의용군 7연대의 중대장인 남편을 수행했는데, 용기와 위엄으로 부대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그녀는 중대 병사들의 투표를 통해 제2 중대장으로 선임되었다. 마리 셸링크(Marie Schellinck)는 16세 때 뒤무리에 휘하의 북부군에서 복무했으며 발미, 제마프 전투는 물론 1793년과 1794년의 모든 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녀는 뒤에 아르콜(Arcole)에서 나폴레옹을 수행했는데, 황제는 그녀를 주목하고 1808년 금 목거리 훈장을 수여하였다. 그녀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여 받은 최초의 여성이었다.<sup>46)</sup>

남편 곁에서 함께 전투하기를 원했던 프티장(Madeleine Petitjean)은 48세에 남편과 합류하기 위해 파리를 출발했던 바, 그녀의 남편은 소르본느 제4 포병중대의 공병으로 방데 반란군 진압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부상당할 때까지 싸웠다. 뒤브와(Dubois) 역시 파리 7대대에 복무하

44) Laflandre-Linden, 1789-1793 *Les Femmes*, p. 40.

45) *Ibid.*, pp. 40-41.

46) *Ibid.*, p. 41.

는 육군대위 남편과 함께 싸우기 위해 파리를 떠났는데, 그녀는 군복을 입고 대포를 조준하여 쏠 정도로 다른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남편이 부상당한 뒤 병사들에 의해 제2의 중대장으로 추대된 그녀는 계속해서 많은 전투에 참가했다. 보다 좋은 예는 뒤쉬맹(Angelique Duchemin)의 경우로서 그녀는 1792년 21세로 제42 보병연대에 복무하도록 카사비앙카(Casabianca) 장군의 허락을 받았으며 용감한 활약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승진을 거듭한 그녀는 1794년 5월 24일 제스코(Gesco) 요새 전투에서 중사로서의 임무를 다했으며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여성영웅의 용기를 가지고 용감히 요새를 지켜냈다. 뒤이은 칼비(Calvi) 공격에서 그녀는 16인치 대포를 다루다가 심한 부상을 당함으로써 군 경력을 마치게 된다. 폐병원에 들어간 그녀는 육군소위로 승진되고 많은 포상을 받았다. 뒤에 나폴레옹 3세는 그녀에게 레지옹 도뇌르 십자훈장과 세인트 헬레나 메달을 수여했다.<sup>47)</sup>

얼마나 많은 여성이 공화국 군대에서 복무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장기간 전투에 참여한 뒤 생활고로 인해 국가에 구호를 요청함으로써 공식문서에 기록된 경우는 21명뿐이지만 실제로 전투에 가담한 여성들은 훨씬 많았음이 분명하다. 군대에 편입된 여성들의 연령은 대부분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었으며 가장 어린 여성은 16세였고 17세의 경우도 여러 명 발견된다. 그녀들의 사회적 조건은 소농이나 장색 또는 노동자 출신이 대부분으로 빈번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음이 구호요청 문서에서 드러난다. 그녀들은 최소한 2년 정도 복무했는데, 관련 사료들은 혁명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단위부대에 복무하였으며 이따금 동료병사의 투표를 통해 하사관이나 사관의 계급을 획득하기도 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당시 군대 내에 용기와 통솔력은 남성만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혐오자로 구성된 자코뱅파가 주도하는 국민공회와 혁명정부조차 이러한 여성 전투원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그녀들을 구호나 연금 배분에서 남성과 평등하게 취급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sup>48)</sup>

47) Jean-Paul Bertaud, *La Vie quotidienne des soldats de la R évolution 1789-1799* (Paris : Hachette, 1985), pp.153-154.

48) *Ibid.*, p. 156.

## V. 반혁명과 1795년의 역할

여성의 역할은 대혁명에서는 물론 혁명에 대한 저항운동, 특히 방데 반란에서도 두드러졌다. 왕당파는 대혁명을 사탄의 행위로 간주하면서 반혁명을 선동하고 선서거부 사제와 국왕의 후원자임을 자처했다. 혁명주의자들은 여성의 선서거부 사제에 대한 애착을 지적함으로써 반란사건의 유발에서 여성의 역할을 내세웠다. 카리에(Carrier)는 1793년 12월 11일 공안위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사제들과 함께 방데전쟁을 선동하고 지지한 것은 바로 여성들이다”라고 썼다. 같은 맥락에서 미슐레는 방데 여성들의 사제에 대한 순종과 더불어 여성들이 남편을 부추겨 반란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바 있다. 여성들은 가톨릭 군대와 국왕파 군대를 추종했는데, 전투원 가운데 노인과 아이 그리고 사제들이 섞여있었다. 여성 가운데 일부는 직접 전투에 가담했던 바, 공화파는 이 여성들의 맹렬함과 잔인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르드로(Renée Bordereau)라는 여성전사의 경우, 한 전투에서 21 명의 공화파 병사를 죽인 것으로 전해진다.<sup>49)</sup>

여성들은 반혁명적 반란 지역이나 왕당파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지역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주로 반란의 초기에 그쳤고 위원회 조직이 공식화되면서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 반란 지역에서 저항은 우선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루에르그(Rouergue)의 경우가 좋은 예인 바, 여성들은 그곳에서 사제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할 때 반란의 선두에 섰으며 자녀와 청년들이 합세하였다. 반대로 신교파 여성들은 사제에 반대하는 과격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생-장(Saint-Jean)에서 신교도 여성들은 “사제들은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한 악당들이다”라고 외치면서 가톨릭교도의 피로 손을 씻고 성당을 더럽히고 싶다고 소리쳤다. 콩타(Comtat)지방의 말모르(Malemort)에서는 혁명과 선서사제 마티외 미스타를레(Mathieu Mistarlet)가 여성들이 주도한 책동 때문에 코뮌을 도망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사건의 결과 광신주의자로 알려진 산파와 그녀의 딸, 구호소의 한 수녀, ‘성처녀’로 알려진 한 여성과 두 명의 과부들이 광신주의를 전파하고 새로운 사제에 공개적으로 대항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종교적

49) Guilhaumou et Lapiéd, *Encyclopédie politique*, pp. 157-158.

투쟁의 와중에서 도시 입구에 걸려 있던 한 벽보에는 민중협회 회장이며 선서사제인 마티외 미스타를레가 유다로 취급되었으며 애국파들은 카인으로 간주되었다.<sup>50)</sup>

반혁명적 여성들 가운데 일부는 국왕과 그 가족에게 감상적, 상징적인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녀들에게 국왕은 절대주의 이론의 모든 신성함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그의 죽음은 결백한 죽음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반혁명적 여성들은 국왕을 순교자로 간주하고 그 옷가지와 머리털 타래들을 신성한 성유물로 소중하게 보전하였다. 그녀들은 또한 국왕의 초상이 새겨진 화폐를 수집하며 그것에 입을 맞추고 애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여성들의 다수는 반혁명적 여성 가운데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했다. 한편 ‘온건파’로 불리던 유복한 계층의 여성들은 왕당파에 공개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군주정을 지지하고 공화정의 적법성을 부정하며 대혁명을 혐오한다. 온건파 여성들은 자코뱅과 산악파에 적대적이었으며 사회적 경멸성을 갖고 천민, 하층민, 걸인 등 이른바 ‘쉬앵-쿨로트(chiens-culottes)’에 대항하여 유산자 편에 서있다고 단언하였다. 온건파 여성들은 1793년 여름 마라의 죽음에 환호하였으며 공화력 2년 프레리알의 로베스피에르와 콜로 데르브와에 대한 암살기도가 실패하자 애석함을 나타냈다. 그녀들은 회장에서 삼색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혁명적 상징들을 ‘밑을 닦는 누더기’로 경멸하고 배척하였다.<sup>51)</sup> 파리 여성에 관한 문서에 의거해 볼 때 가톨릭에 집착한 많은 여성들 가운데 반수 이상은 광신주의적 혐의로 체포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녀들은 반동 사체를 숨겨주고 종교 의식에 쓰이는 장식품을 은닉하며 몰래 미사에 가거나 자신의 집에 반동사체를 불러 미사를 올렸다. 그녀들은 1791년의 성직자 법 이전에 존재한 교회단을 인정하고 구체제와 국왕 그리고 옛 사제들을 그리워했다.<sup>52)</sup>

대혁명에 대한 여성의 저항운동은 — 특히 종교분야에서 — 공화력 2년 혁명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확산된다. 반혁명에 가담한 여성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으며 비록 남성보다는 수가 적었지만 감옥에 투옥된 여성들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성 수감자 수는 특히 1793년 9월부터 끊임없이 증가되었는데, 당시에는 망명귀족의 친지라는 사실만으로 쉽게 체포로 이어졌기 때

50) *Ibid.*, p. 158.

51) Dominique Godineau, *Citoyennes tricoteuses : Les femmes du peuple à Paris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 ALINEA, 1988), p. 247.

52) *Ibid.*, p. 252.

문이다. 귀족여성들은 대혁명에 적대적 입장을 취하거나 반혁명적 서신을 보 관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망명귀족 또는 혁명의 적들과의 교신은 체포의 빈번한 동기였다. 몇몇 여성은 혁명의 적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망명귀족, 반동사제, 추방자들을 보호하고 의원과 관리를 매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반혁명에서 활발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포정치에 희생된 여성들은 귀족층뿐만 아니라 민중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다. 1792년 8월부터 공화력 2년 테르미도르 사이에 파리에서 체포된 9,294명의 조사가 가능한 사람들 가운데 1,315명은 여성이었다.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427명의 여성 가운데 240명은 특권신분과 상층 부르주아지, 23명은 중간 부르주아지, 159명은 소부르주아지와 민중계급에 속했다. 민중출신 여성들은 특히 에베르파의 제거이후 파벌싸움의 희생양이었다. 126명의 수녀들 역시 공포정치의 희생양이었는데, 유죄선고를 받은 수녀들은 단순한 선서거부 때문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콩피에뉴 카르멜 수도회의 수녀 17명은 서둘러 시행된 재판에서 국왕의 초상화와 반혁명적 서신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오랑주(Orange)에서 재판 받은 42명의 수녀 가운데 3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녀들은 수녀원의 폐쇄이후에도 신앙생활을 공공연하게 계속함으로써 위험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몇몇 수녀들은 재판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혁명이 창출한 새로운 사회의 합류를 끝까지 거부하며 왕당파적 신념을 고수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광신주의와 미신은 공화주의 헌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범죄로 간주되었다.<sup>53)</sup>

평신도 가운데서도 전통적 종교에 대한 집착은 종종 반혁명적 태도를 취하게 만들었다. 여성들은 사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중을 내리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여성들은 혁명력의 열흘마다의 휴일(décadi) 준수에도 반대를 표명하고 주일날 축제용 옷을 다시 꺼내 입었으며 미신의 표시로 간주되던 보석과 십자가 모양의 장신구를 공공연하게 착용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때때로 보다 깊숙하게 반혁명 측에 가담했던 바, 콩타지방 생-세실(Saint-Cécile)에서 로즈 들레이(Rose Delaye)는 스파이 행위를 위해 애국파의 집에 들어가 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애국파에 대한 비협담을 유포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다른 두 명의 여성은 애국파에 대한 비

53) Guilhaumou et Laped, *Encyclopédie politique*, pp. 160-161.

방문을 배포하고 자신의 집에서 귀족들의 모임을 주선하는 동시에 연방과의 위기 시에 마르세유인들을 지지하며 반혁명의 상징인 성심(Sacr -Coeur)의 이미지를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은 애국파 보다는 보수파 측에서 더욱 뚜렷했는데, 신앙의 보호는 여성 개입의 주된 동기였다. 따라서 혁명파에게 이들 반혁명 여성의 존재는 잠재적인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음이 분명하다. 방데 지방에서 여성과 아이들은 전투와 진압의 희생양이 되었다. 1793년 8월 1일 국민공회의 법령은 여성과 아이들을 그 지방 안에 강제수용 하도록 결정했지만, 여성들은 공화파 군대의 폭력행위를 감수했으며 남성과 여성은 물론 아이들에게까지 확대된 조직적인 처형의 희생자로서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sup>54)</sup>

대혁명은 성당들을 파괴하고 막대한 교회 영지를 국유화시켰으며 프랑스인의 종교적 관행을 심대하게 혼란시켰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혁명기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살아남았으며 다시 부활을 가져왔던 바, 그것은 여성의 역할 덕분이었다. 대혁명 동안 교회는 비밀 미사 묵주기도, 전통적 신앙과 의식에의 집착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놀라울 정도로 두드러진 것이었다.<sup>55)</sup> 여성들은 우선 무자격 사제에 대해, 그 다음으로는 비기독교화에 대해 냉담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남편들 보다 훨씬 더 열광적으로 가톨릭 종교와 반혁명에 헌신하는 경향이 있었다. 테르미도르 반동 이후 가톨릭의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특히 여성이었다. 사제와 여성의 제휴는 프랑스 교회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바, 여성에 의존하는 교회는 바로 프랑스혁명의 유산으로서 그것은 19세기 교회의 존속과 페미니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sup>56)</sup>

공화력 2년 전체를 통하여 여성문제는 주요한 관심사로 존재했다. 입법적 중앙집권화에 토대를 둔 혁명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여성들은 혁명과 편에서는 물론 산악파 정책에 대한 반대와 반혁명 전선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다. 여성들의 시민적 해방은 결혼을 ‘하나의 시민적 제약’으

54) *Ibid.*, pp. 161-162.

55) Olwen Hufton, “Femmes, religion et Contre-R volution, L’exp rience de sept dioc ses”, *Les Femmes et la R volution francaise* (Toulouse: Presses Universitaires du Mirail, 1989), tome 1, p. 231.

56) *Ibid.*, p. 237.

로 정의한 1791년 헌법으로부터 감지되고 1792년 9월 20-25일의 두 법령에 의하여 명백해진다. 이 법은 배우자 사이의 균형을 수립하며 시민들의 호적상의 신분과 이혼의 동기 및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공화력 2년은 새로운 혁명적 제도들 내부에서 그 시민적 잠재력의 현저한 발휘를 그 특징으로 하며 여성들은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있는 시민적 주체가 되었다. 여성들의 이러한 시민적 지위향상은 1804년의 민법전에 의해 소멸되게 된다.

혁명주의자들이 여성에게 가치를 부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이었다. 즉 여성은 미래의 공화파 시민을 출산해야 하며 그것은 바로 공화파 시민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혁명적 이상에 젖도록 교육시키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들은 수많은 혁명축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혁신된 미래 세대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성과 혁명주의자들에게 여성의 역할은 단지 개인적, 사적 영역 안에 제한되어 있었다. 즉 여성이 대혁명에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중협회와 혁명위원회들에서의 여성이 행한 감시와 고발의 역할은 여성들이 지역 공동체의 정치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했으며 공포정치의 와중에서 적대적 집단들 사이의 투쟁에 관련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파리에서의 '신성한 단두대의 제전'은 민중적 여성운동을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바 여성들은 민중의 적들에 대한 처벌을 지켜보는 구경꾼 가운데 다수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화력 2년에 공화파 여성의 역할이 테러주의적 성격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여성들은 극빈자의 구제와 상호부조의 조직망을 결성함으로써 애국적 자선행위 분야에서 으뜸가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분야에서와 달리 구제분야에서 여성들을 방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몽-드-마르상(Mont-de-Marsan)의 한 관리는 국민공회에 보내는 한 서신에서 “공화파 여성들은 집안 일에 정성을 쏟은 뒤 모든 시간을 봉대용 형질을 만드는데 바치면서 스파르타 여성의 특성을 향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디딘다”고 썼다. 빅-앙-비고르(Vic-en-Bigorre) 민중협회의 시민들은 국가방위에서 여성과 입법자들 그리고 남성들 사이에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신들이 훌륭한 법을 만드는 동안 우리들은 전투하러 가고 여성들은 부상병을 돌볼 것이다.”<sup>57)</sup>

57) Guilhaumou et Laped, *Encyclopédie politique*, p. 160.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1794년 7월 운명의 테르미도르 9일에는 지난 해 여름과는 대조적으로 여성 상퀼로트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여성운동도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측 보고서에도 시청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남성 집단에 관한 기록은 있지만 여성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테르미도르 9일은 거의 전적으로 남성만의 에피소드였다. 벽찬 생계비에 몰두하던 대부분의 민중여성에게 테르미도르 9일은 자신과 별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여성과 민중운동에 대한 일련의 탄압 때문에 여성들은 혁명정부에 등을 돌렸으며 의식적인 여성투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성의 정치적 관심과 의식은 크게 무뎠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하여 테르미도르 반동과 혁명정부의 종결은 많은 여성에게 가톨릭의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었으며 자치시의 보고서들은 공개 예배의 찬양과 신서거부 사제에 대한 지원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공회는 반혁명 혐의자들의 석방을 선포했으며 여성들은 자신의 자유는 물론 쉼과 거리로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로베스피에르 몰락이후의 이러한 평온함과 소강상태는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로운 새로운 변화는 오히려 민중계급 그리고 특히 파리 여성들 가운데 분노의 상승을 가져왔던 바, 여성투사들은 빵 부족에 대응하여 여성대중을 동원하도록 선동했으며 남성들을 투쟁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여름에 잠시 주춤했던 여성들의 불만은 가을에 다시 증폭되었다. 석탄 등 땔감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상인들은 최고가격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생필품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불만과 상인에 대한 적대감이 커졌으며 겨울이 오면서 불안은 가중되고 정치적 반사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성을 포함한 민중들은 빵의 요구와 더불어 '1793년 헌법'의 시행과 구속된 애국파의 석방 등 정치적 차원의 요구도 빠뜨리지 않았다.

1794년 겨울은 죽음의 겨울이었다. 대혁명이 시작된 이래 파리의 서민대중이 그토록 심각한 위기를 겪은 적은 없었다. 최고가격제의 포기 이후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일어났으며 식료품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극빈자들은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빠졌다. 공화력 3년의 겨울은 18세기의 가장 혹심한 겨울 가운데 하나였다. 1794년 12월말에 영하 10도로 내려간 날씨는 이듬해 1월 23일에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졌다. 세느강이 결빙되면서 수도 파리에 대한 생필품, 특히 곡물과 연료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실업이 만연하였다. 밀가루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빵의 공급상태도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병자와 노인 등 약자들이 먼저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갔다.<sup>58)</sup>

1795년 봄에 파리를 휩쓴 기근은 상층 부르주아지가 향유하는 향락적 생활과 대조를 이루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죽음에 직면했으며 여성들은 끝없는 빵을 위한 행렬 속에서 기다림에 지쳐 점차 폭력적인 화제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국민공회가 민중의 행복을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민중 사이에 확산되고 여성들은 봉기를 호소하는 한편 남성들을 겁쟁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렇게 하여 다른 식량난에서처럼 여성의 요구사항은 으름기는 현안이 되고 정치적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3월말에 여성과 노동자를 주축으로 하는 폭동들이 파리의 민중 구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테르미도르 반동의 적대자들에 의한 제후가 정치적 윤곽을 드러냈다. 시위들이 국민공회 앞에서 발생했으며 그라빌리에(Gravilliers) 구의 여성시민들은 인권선언서 판을 들고 의회로 행진하였다. 제르미날 7일 그라빌리에 구 여성시민들의 행동은 특히 웅변적이었던 바, 여성들은 인권선언을 위반한 국민공회 의원들을 비합법적 존재로 간주하고 자신들은 합법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였다.<sup>59)</sup> 비록 여성의 요구가 국민공회를 움직이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빵 배급량이 줄어들자 여성들은 식량을 적재한 마차를 가로채고 그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가져가기를 시도하였다.

1795년 4월과 5월에 걸쳐 파리 전역에는 사실상의 기근이 휩쓸었다. 제르미날 27일(4월 16일) 샹젤리제 구에서 250명, 플로레알 1일(4월 20일) 기욤프 텔 구에서 162명, 4월 21일에는 앙디비지빌리에 구에서 300명이 빵을 구하지 못하였다. 플로레알 13일(5월 2일)에 한 여성노동자의 남편은 “살기 위해서는 도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절망적으로 말한다. 5월에 아사자 수는 놀라울 정도로 늘어났으며 배가 고파 쓰러진 남녀를 보는 것은 눈에 익은 일상적인 현상이었다. 5월 15일에 한 경찰 측 밀정은 “기근으로 인한 자살이 이처럼 일반적인 때는 없었다”고 썼다. 굶주린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던졌고 세느강에는 시체들이 뚱뚱 떠다녔는데, 제르미날 22일에서 플로레알 1일까지 11일 동안 최소한 17구의 시신이 건져졌고 1명은 살아났다.<sup>60)</sup> 플로레알 1일의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들은 공포정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절망

58) Godineau, *Citoyennes tricoteuses*, p. 290.

59) 제르미날의 봉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Godineau, *Citoyennes tricoteuses*, pp. 300-304를 참조.

60) *Ibid.*, pp. 305-306.

적인 현실을 개탄하였다:

“로베스피에르 시기에 우리는 빵을 가졌지만 오늘은 굶주려 죽는구나 ... 8개월 전 우리는 빵이 있었지만 지금은 빵도 구하지 못한 채 예측상태에 있다.”<sup>61)</sup>

제르미날과 플로레알의 경찰보고서에 빈번히 기록된 바대로 여성들은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망설이는 남성들을 비난하면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그들을 ‘바보 멍청이’ 또는 ‘용기 없는 겁쟁이’로 경멸하고 비웃었다.

고디노에 의하면 공화력 3년 프레리알 1일(1795년 5월 20일)은 이론의 여지없는 여성 대중운동의 절정이었다. 도처에서 여성들은 단독으로 또는 남성 투사나 노동자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던 바, 그것은 단숨에 이루어진 즉각적 봉기였기 때문에 이전의 폭동들과는 성격이 달랐다.<sup>62)</sup> 프레리알의 봉기는 여성들의 국민공회로의 계속적인 모여들기로 시작되었으며 곧이어 생-탕투안느 교외의 남성들, 다시 말해서 혁명투사와 노동자들이 가세하였다. 봉기한 여성들은 도처에서 국민공회를 방어하려는 사람을 공격했으며 길가의 모든 남녀에게 함께 가담하도록 강요하였다. 「모니퇴르(Moniteur)」지는 3시 33분에 대규모의 남녀 군중이 소총과 창 그리고 장검으로 무장한 채 국민공회에 진입하여 ‘빵과 1793년의 헌법’을 요구했으며 의원들을 몰아내고 의회의 좌석을 차지했다고 썼다. 봉기의 와중에서 의원 페로(Féraud)가 살해되었으며 봉기자들은 국민공회의 난간에서 ‘민중의 봉기’를 낭독하였다. 사흘 동안 계속된 민중봉기에서 봉기자들은 빵과 1793년 헌법은 물론 새로운 파리 자치시 정부의 수립, 구속된 애국파의 석방, 제르미날에 체포된 산악파 의원들의 복귀, 원활한 식량공급을 위한 가택수색, 적대적 의원들의 체포 등을 요구하였으며 상퀼로트들은 구들의 상설화를 회복하고자 원하였다.<sup>63)</sup> 그렇지만 최후의 산악파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은 실패했고 시위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약 120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프레리알 3일(5월 22일) 킬멘느(Kilmaine) 장군의 명령 하에 국민공회가 파견한 1천명 이상의 군대가 생-탕투완느 안으로 진입했을 때 여성들은 다시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민들에 포위된 부대는 처음에 불명예스러운

61) *Ibid.*, p. 314.

62) *Ibid.*, p. 319. 프레리알의 봉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Godineau, *Citoyennes trico-*  
*teuses*, pp. 319-332를 참조.

63) *Ibid.*, pp. 323-324.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킬멘느 장군은 “우리는 수많은 무장 남성들과 남성보다 1천 배는 더 지독한 거친 여성 집단에 둘러싸여 버렸다”고 썼다. 아침 10시에 정부의 위원회들은 3개 구의 대포를 반납하도록 생 탕트완느 교외에 명령했는데, 명령을 거부한다면 구는 반란상태로 간주되고 새로운 식량 공급은 중단될 것이었다. 여성시민들은 대부분 끝까지 저항할 것을 지지하면서 남성들에게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허사였다. 봉기자들은 결국 최후통첩에 굴복했고 저녁 8시-9시에는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 생 탕트완느 교외의 항복은 여성 대중운동과 상퀼로트 운동 전반에 조종을 올린 셈이었다.<sup>64)</sup> 국민공회는 프레리알의 봉기 동안 여성의 선동적 역할에 대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여성들을 국민공회 방청석에 입장 금지시키고 모든 정치적 모임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탄압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이런 탄압법의 제정에는 국민공회 의원들의 여성혐오증(misogynie)은 물론 여성을 집안에 가두어 안사람으로 만들려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두, 그리고 민중운동의 가장 활발한 구성요소로서 대중적 여성운동에 대한 두려움 등이 배경에 깔려있었다. 파리 민중은 무장해체를 당했으며 민중구역에 대한 조직적인 정복으로 인해 민중운동의 희망과 역동성은 소멸됨으로써 이제 총재정부의 경제난에 직면해서조차 더 이상의 여성 대중운동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공화력 3년 파리는 민중봉기의 첨단이었지만 지방의 봉기들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파리의 경우처럼 지방의 민중운동에도 식량요구와 정치적 요소가 뒤섞여 있었다. 예를 들어 공화력 3년 테르미도르에 망취 지방 쿠탕스(Coutances)에서는 구속된 남편과 부친, 애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왕당파에 항거했으며 의용병과 동맹하고 8월 10일을 혁명적으로 경축하였다. 여성들은 공화주의적 향연과 민중 무도회를 개최하고 ‘싸이라(잘 될거야)’와 ‘라 마르세이에즈’를 노래불렀다. 축제 기간에 여성들은 의용병들로 하여금 갇혀있는 애국파를 석방하도록 시도했지만 축제가 폭동으로 변하지는 않았다. 결국 이러한 혁명적 민중동원은 실패로 돌아가고 애국파와 민중은 남녀 모두 반동의 영향을 받게 된다. 1795년 9월 30일 아를르에서는 기소된 테러리스트 애국파 명단 속에 359명의 자코뱅파와 함께 여성 상퀼로트 65명이 포함되었다.<sup>65)</sup>

테르미도르파의 주도 하에서 공화력 3년 헌법의 시행은 대혁명이 획득한

64) *Ibid.*, pp. 329-331.

65) Guilhaumou et Laped, *Encyclopédie politique*, pp. 163-164.

인간과 시민의 자연권에 중지부를 찍었으며 여성투사들이 의지하고 있던 민중주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동시에 여성을 열등한 지위로 빠뜨렸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여성을 열등한 위치 속에 존속시키게 될 것인 바, 그들의 눈에 여성은 반동적 연설을 부추기는 파괴적 민중투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공화파가 불신하는 반혁명 사제단과 연계된 독실한 신도의 이미지를 함께 지닌 것으로 비쳐졌다. 그렇다면 프랑스혁명은 여성을 남성들의 비판적 시선 속에 드러냄으로써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존재를 한층 더 불확실하게 만들었던가? 그렇지 않다. 대혁명에서의 여성들의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는 1793년의 '마양스(Mayence) 공화국'은 물론 1796-1799년 동안 나폴레옹 군대의 도착과 함께 이탈리아에 건설된 밀라노, 볼로냐, 제노아, 베네치아 등 자매 공화국들의 예를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계몽주의의 딸이자 여류시인이자 정치평론가였던 엘레오노라(Eleonora Fonseca Pimentel)는 나폴리 혁명과 관련되는 바, 그녀는 민중의 적들에 대한 애국과 연대의 창설을 제안하고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시민적 역할의 증대와 공안조치의 채택을 주장했지만 혁명의 실패 뒤에 그녀는 처형당하고 만다.<sup>66)</sup> 이처럼 혁명운동의 자코뱅적 개념은 이탈리아 반도에서도 여성을 혁명적 투쟁으로 나서게 하는데 크게 공헌했음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 VI. 맺음말

여성들은 구체제하에서 신체적, 지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18세기를 지배하던 이러한 생각은 여성을 비하하고 평가절하 시키는 한편 남성위주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편견의 반영이었다. 계몽사상가들의 담론은 주로 상류층 여성에 집중되었고 민중계층 여성의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외면하는 등 여성의 일상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혁명 초부터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콩도르세와 구즈는 여성도 이성을 지닌 존재로서 남성과 동등한 자연권을 지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남녀 평등론의 지지자는 소수에 불과했고 주장을 관철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혁명의 지도자들은 국가 일이나 정치문제에 개입하려는 여성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여성의 역할

66) *Ibid.*, p. 165.

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여성의 현실참여에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1789년 10월 초 베르사유로의 행진을 통해 대혁명에 개입함으로써 정치무대로 끼어 들었으며 혁명적 여성영웅의 이미지를 탄생시켰다. 여성들이 주도권을 장악한 이 혁명적 동원은 국민방위대의 합류를 가져왔으며 빵 문제가 주요 동기였지만 그 요구 사항은 정치적 성격을 함께 지녔다. ‘빵의 행진’ 또는 ‘여성들의 행진’이라고 불려진 이 사건은 매우 자발적이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혁명적 사건이었다. 베르사유로의 행진은 대혁명 초의 몇 달 동안 이루어진 여성들의 발전된 행동양식의 결과이며 정치적 자각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1791년 9월에 발표된 구즈의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은 1789년 8월 26일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1791년의 새로운 헌법이 남성만의 권리를 언급한데 대항하는 여성권리에 관한 생생한 역사적 자료이다. 그녀는 여성의 권리가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하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천명하고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설 권리가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연단에서 발언할 권리를 지녀야한다고 요구하였다. 여성들은 1791년 7월 17일의 집단청원서에 서명하였으며 샹 드 마르스 학살사건에서 많은 수가 피를 흘렸다.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모임과 클럽의 회의들에 빈번히 참가했으며 길거리, 시장, 선술집, 클럽의 입구 등에서 대혁명이 표방하는 동기를 옹호하였다. 많은 협회들에서 여성들은 회의에 참관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몇몇 협회에서는 완전한 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 여성협회들은 주요 도시에서 수가 증가되었는데, 1789년부터 1793년까지 56개의 여성클럽이 확인되었다. 여성협회들은 교육활동이나 자선행위 등 전통적 역할은 물론 선서사제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몇몇은 정치적, 급진적 활동에 개입하였다.

애국과 여성들의 존재는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기를 들고 싸우려는 의지와 시위 및 무장행렬을 통해 확인되었다. 1792년 3월 6일 여성 국민방위대를 조직하기 위한 315명의 파리여성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폴린느 레옹에 의해 입법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청원서는 의원들에 의해 거부당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여성 시민권 개념의 출현을 목격하게 된다. 그것은 무기를 들고 조국을 수호하려는 시민적 의무와 여성 고유의 권리와 결합이라는 정치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1792년 6월 20일 킬리리 궁 침입 때 여성들의 무장행렬에의 참여는 전투적 민중동원에서의 여성들의 개입

과 군주정에 대한 공화주의 운동의 역동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비록 소수였지만 여성들의 정치적 평등과 투표권의 요구는 여성의 무기를 들 권리를 끈질기게 주장하였다. 실제로 조국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운 여성들에 관한 자료들 가운데 44명의 여성 병사들에 관한 기록이 발견된 바 있다.

1792년 8월 10 일은 바스티유 사건처럼 본질적으로 남성의 날이었지만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지상명령에 따라 여성들 역시 툴르리 궁 공격에 가담했으며 3명의 여성은 국왕에게 혁명모를 쓰도록 한 영웅적 행동에 참여하였다. 여성들은 1792년의 단죄적 상황에 뚜렷하게 참여하였으며 그 중요성은 식량을 위한 폭동들에서 보다 오히려 더 컸다. 고디노가 상세하게 조사한 바처럼 여성들의 정치적 역할은 1793년에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여성들이 소외 당한데 대한 자각은 혁명운동 내에서 여성들의 정치적 지위 평등화를 위한 다방면의 행동을 고무시켰다. 1793년 초의 권리요구 운동과 관련된 여성들은 노동자, 소상인, 하녀 등 주로 민중계층의 여성이었으며 따라서 파리 여성운동은 자크 루와 격양파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여성들의 물가에 대한 소망은 매점자 및 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려는 강력한 의지를 수반하였다. 여성들의 정치적 실천에서의 독자성은 1793년 5월 10일 ‘혁명적 공화주의 여성시민 협회’의 출범과 함께 명백해진다. 자신의 가정을 공화국의 적들로부터 지키려는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이 협회는 혁명운동의 주요 세력들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코르들리에 클럽과 더불어 지롱드파의 몰락과 공포정치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일단의 여성들은 직접 무기를 들고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기를 원했다. 여성들은 1793년 5월 31일-6월 2일의 봉기를 시작하고 참여했던 바, 그 날은 여성들이 봉기를 통해 다시 한번 완전한 주권자로서의 입지를 확인한 날이었다. 여성들은 또한 7월 13일에 암살된 혁명의 순교자 마라를 기리기 위한 제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성들의 역할은 대혁명은 물론 대혁명에 대한 저항운동, 특히 방데 반란에서도 두드러졌다. 종교분야에서 여성들의 대혁명에 대한 저항운동은 공화력 2년 혁명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더욱 확산되었다. 반혁명에 가담한 여성들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으며 투옥된 여성의 수는 특히 1793년 9월이래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당시 망명귀족의 친지라는 사실만으로 여성들은 쉽게 구속되었는데, 일부 여성들은 망명귀족이나 반동사체를 보호하고 그들과 교신함은 물론 의원과 관리들을 매수하려고 까지 시도하였다.

테르미도르 반동이후에 가톨릭의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특히 여성들이었다. 대혁명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교회는 살아 남았으며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바, 그것은 전적으로 여성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에 의존하는 교회란 바로 프랑스혁명의 유산으로서 이러한 사제와 여성들 사이의 제휴는 19세기 프랑스 교회의 존속과 페미니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총재정부 하에서 1794년 말의 겨울은 죽음의 겨울이었고 이듬해 4-5월 파리를 휩쓴 기근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다. 무능하고 대책 없는 국민공회에 대한 엄청난 불신 속에서 여성들은 봉기를 호소하는 한편 남성들을 겁쟁이로 비난하였다. 고디노가 지적한 대로 1795년 봄 프레리알의 봉기는 여성 대중운동의 절정이었다. 그러나 프레리알 봉기의 실패는 파리 민중의 무장해체와 함께 상켈로트 운동 및 여성운동의 종결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의 대중적 여성운동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성들은 프랑스혁명의 민중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바, 그것은 특히 1789년 10월의 날과 1795년 봄의 봉기들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여성들은 자녀양육의 의무로 인해 식량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식량 폭동이나 빵 배급을 위한 행렬 속에서 수가 많았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혁명의 정치적 영역에까지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여성투사들이 1791년 7월 17일, 1792년 6월 20일과 8월 10일, 1793년 5월 31일-6월 2일 그리고 공화력 2년 테르미도르 9일 등 정치적 부류의 중대한 사건들에 참여한 사실은 혁명의 전개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 의식이 보다 발전되고 적극적이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혁명적 사건이나 봉기의 날들에서 여성의 선동적 역할이었다. 여성들은 봉기에 가담하지 않는 남성을 겁쟁이로 취급하여 비웃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조롱하고 창피를 주었다. 여성들은 주저하는 남성들의 성적 자존심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폭동에 가담하도록 불을 붙이는 일종의 방화범이요 선동자였다. 따라서 혁명적 사건에서의 여성의 폭력적 역할은 신체적, 물리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언어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혁명 또는 반혁명의 와중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가족을 보호하고 여성으로서의 본래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남성들을 지원하는 한편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프랑스혁명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지대하였음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프랑스혁명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던가?

대혁명 초기에 여성의 참여는 종종 매우 환영을 받았으며 혁명지도자들의 격려와 고무를 받기도 하였다. 혁명의 지도자들은 비록 법적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거부했지만 여성시민으로서의 인정, 상속상의 평등, 상호동의에 의한 이혼 허용 등 여성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상당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혁명의 지도자와 의회 의원들은 점차 여성의 정치무대로의 개입에 우려를 표시하고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성향을 드러낸다. 결국 1793년 10월 30일 혁명정부는 여성클럽을 폐쇄시키고 여성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요컨대 부르주아지와 의회세력은 혁명적 대사건의 날들에 파리 민중과 여성의 힘을 이용하여 군주정과 특권신분 그리고 지롱드파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성을 포함한 민중세력이 정치무대에 개입하자 사회질서의 전복을 두려워함으로써 민중운동과 여성운동을 한꺼번에 탄압하게 되었던 것이다. 2년 뒤인 공화력 3년 프레리알 1일과 4일(1795년 5월 23일과 30일)의 법령은 의회 방청석으로부터 여성을 금지시켰으며 모든 정치적 모임에 참석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여성을 다시 집안에 가두고 '집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얼마 뒤 나폴레옹의 민법전은 결혼한 여성을 항구적 미성년자로 만듦으로써 성의 계서제를 합법화시키고 오랫동안 여성을 가부장권의 지배하에 두는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K C I